(755)

선

주체108
(2019)
6

차　　례

표지: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수도의 중심부에 거연히 서있는 주체사상탑
사진 김 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4월 24일 아침 로씨야의 국경역 하싼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렬차에서 내리시여 영접나온 로씨야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24일 18시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역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5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뿌찐대통령각하는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고 각기 두 나라 지도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의 국경역인 하싼역에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으시며 울라지보스또크시에 도착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대통령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뿌찐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뿌찐대통령이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조로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이번 상봉과 회담이 오랜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였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25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회담하시였다.

석상에서 뿌찐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초청을 수락하시고 로씨야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로조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려는 로씨야정부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로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응당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선대령도자들의 뜻을 받들어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최고위급상봉과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래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 지역, 단체들사이의 협력과 교류, 협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쌍방은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께서 4월 25일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뿌찐대통령각하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고계시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을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대통령과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연회에서는 뿌찐대통령각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뿌찐대통령은 지난해에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두 나라 외교관계 설정 7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안정되여가고있으며 로씨야는 조미대화실현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형제적인 로씨야인민이 뿌찐대통령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와 완강하고 굳센 의지를 받들어 내외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뿌찐대통령각하의 줄기찬 령도밑에 로씨야가 반드시 강력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부흥번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로씨야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친선적인 로씨야의 벗들이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뿌찐대통령각하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6일 로씨야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6일 연해변강장관이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4월 26일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를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귀국에 앞서 조로국경지역인 하싼에 위치한 로조친선각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친선방문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오래고도 긴밀한 조로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더욱더 승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글 문봉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해변강장관이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귀국에 앞서 로조친선각을 돌아보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로씨야의 국경역인 하싼역을 출발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야강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4일 금야강2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경위와 실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의 여러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야군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고 전기생산을 정상화하려고 잡도리를 하고있는것은 평가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한 군내인민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인 금야강군민발전소와 잇닿아 계단식으로 건설된 금야강2호발전소는 금야강군민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퇴수와 여러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원천으로 해서 심한 갈수기철에도 계절적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할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중소형발전소로서 규모도 적당하고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타산을 잘하여 실리있게 건설한것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야강2호발전소에 계획대로 수천kW발전기를 다 설치하고 전력을 광광 생산하면 군내 지방공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은 물론 주민지구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히 보장할수 있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군살림살이를 윤택하게 꾸려나갈수 있는 중요한 밑천을 마련한 금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야군에서 커다란 재부인 발전소의 관리운영을 잘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고 군안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군으로 번창하고 활기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글 박병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4일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대구경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을 판정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운동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구경별 화력타격수단들의 화력타격계획을 료해하시고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화력진지진출과 전개를 비롯한 사격준비과정을 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화력타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천둥같은 폭음이 터지고 번개같은 섬광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 어떤 세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현대적인 대구경장거리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운영을 정말 잘한다고, 모두가 명포수들이라고, 현대적인 무기체계에 정통하고 훈련을 강도높게 진행한 결과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임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예고없이 불의에 조직한 화력타격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있는 전연과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작전전투훈련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고수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자나깨나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훈련을 진행하게 된 군인들의 흥분과 열의로 하여 훈련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료해하시고 화력타격훈련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우뢰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목표방향을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검열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력타격을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며칠전에 동부전선방어부대들도 화력타격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는데 오늘 보니 서부전선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여있고 특히 전연부대들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글 김선경

조선의 명산 - 묘향산

예로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묘향산은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웅장하고도 기묘한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숙한 골짜기들과 높은 벼랑들, 구슬같이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등이 울창한 수림과 어울려있는 묘향산은 지역적으로 크게 신향산(내향산)과 외향산으로 구분되여있다.

묘향산에서도 가장 뛰여난 절승을 이루는 곳은 향산천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솟은 련봉들과 기암들, 골짜기풍치로 이름난 상원동, 만폭동, 천태동, 칠성동 등 계곡들과 폭포들이 집중되여있는 신향산일대이다.

상원동과 만폭동사이 향산천기슭에는 사람들의 건강에 효능높은 약수도 있다.

선조들에 의하여 개척된 력사가 오랜 묘향산에는 옛건물과 조각, 탑과 비석, 그림과 공예품, 인쇄문화유물을 비롯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많다.

대표적인것은 11세기의 건축술을 대표하는 불교사찰인 보현사와 인쇄기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팔만대장경》, 중세기의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8각13층탑과 4각9층탑 등이다.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흠모하여 세계5대륙의 수많은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각계층 인사들이 지성담아 드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이 자리잡고있어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있다.

묘향산일대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어 센 바람이 없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것으로 하여 낮은지대 식물로부터 높은지대의 식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종류가 많을뿐아니라 원시림도 곳곳에 잘 보존되여있다.

해발높이에 따라 소나무, 참나무, 신갈나무, 밤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산마루부근에는 누운잣나무, 누운향나무 등이 퍼져있다.

묘향산에는 산삼, 만삼, 삼지구엽초 등 약용식물자원과 머루, 다래를 비롯한 산열매자원이 풍부하며 송이버섯을 비롯한 버섯류도 많다.

묘향산에서는 곰, 산양, 사향노루, 오소리, 너구리 등 40여종의 산짐승류와 198종의 새류들이 서식하고있으며 향산천을 비롯한 하천들에는 칠색송어, 은어, 모래무치, 버들치와 같은 물고기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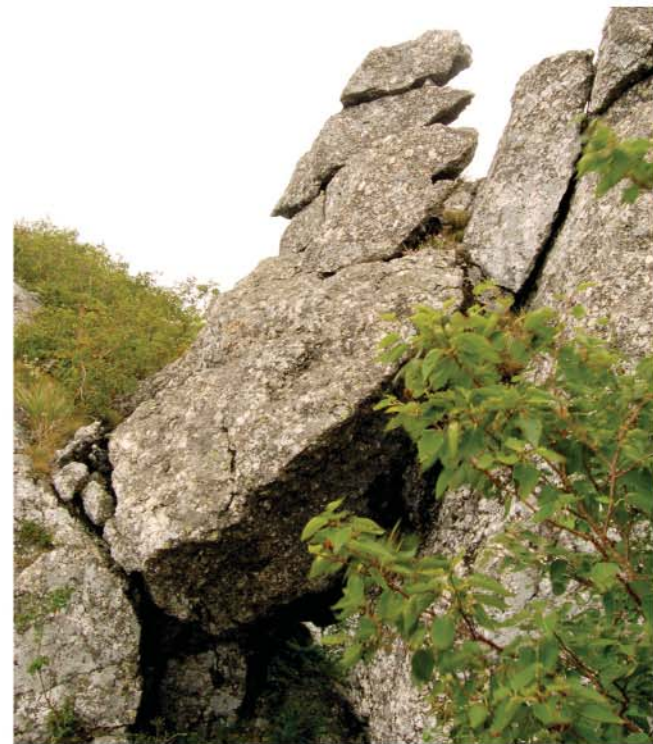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 이름높은 묘향산은 주체98(2009)년 5월에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설정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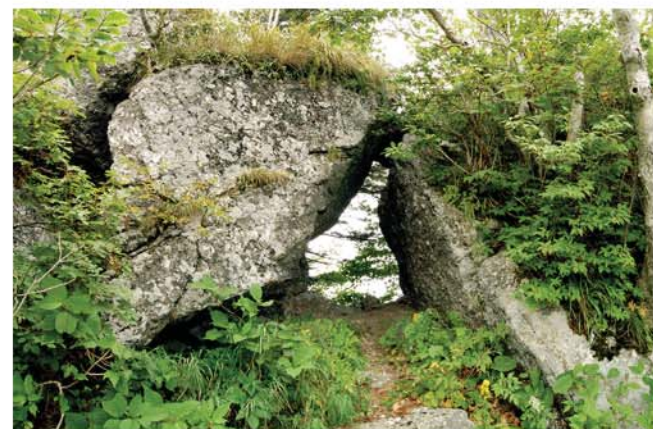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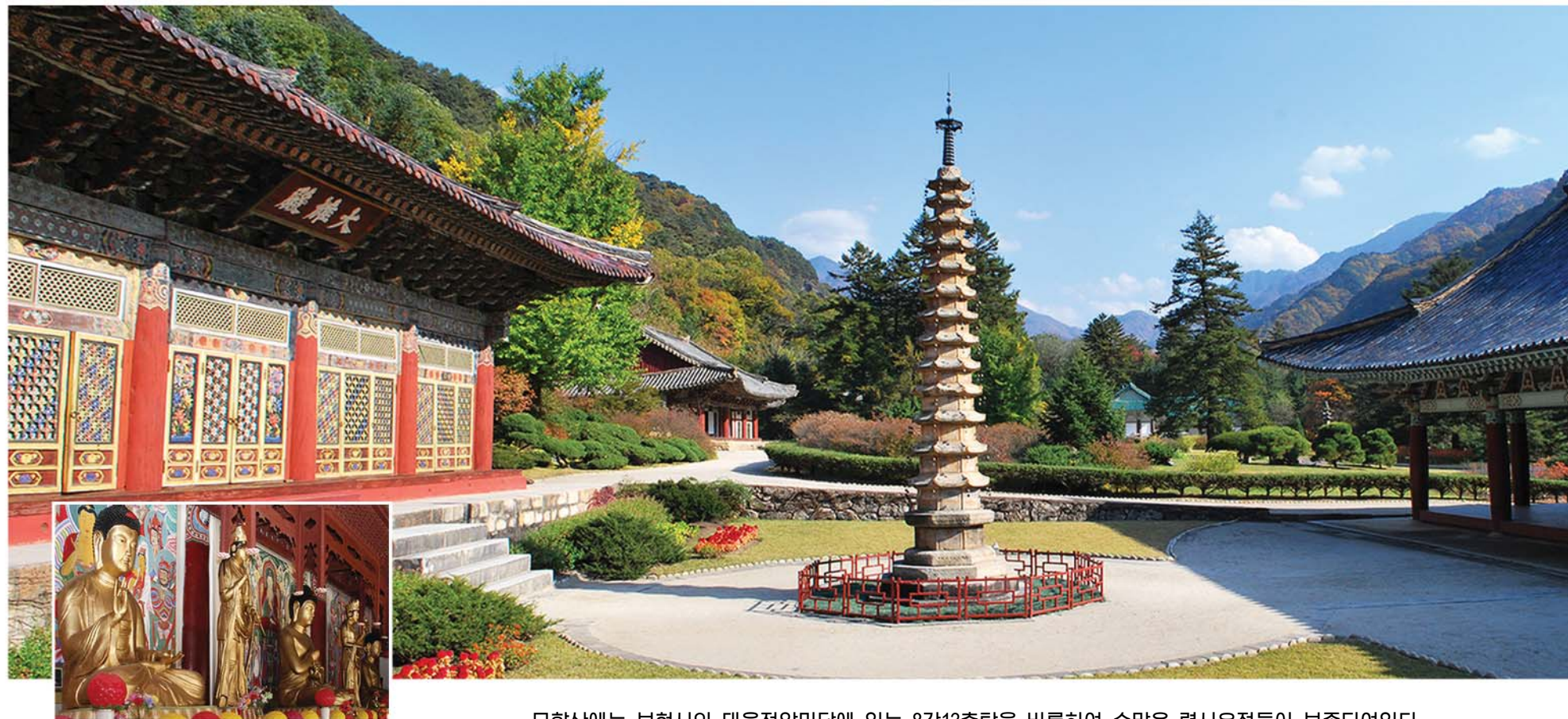
사진 공유일, 전선일, 글 김향미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의 사계절

사자소

향산호텔

이선남폭포

원만봉불탑과 원만문

묘향산에는 보현사의 대웅전앞마당에 있는 8각13층탑을 비롯하여 수많은 력사유적들이 보존되여있다.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있는 조선민족의 정통무도 태권도

태권도는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무술들의 기술동작들과 훈련방법들을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원리들을 도입한 현대무술이다.

이미 반세기전부터 태권도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활발히 보급되여오고있다.

조선태권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의 정통성을 보존하는것과 함께 전세계 태권도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해당 민족협회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나라들에 국제사범들을 파견하고 있다.

태권도의 기술급수체계는 수련생들을 위한 10개의 급과 전문가들을 위한 9개의 단으로 구분되여있는데 사범은 4단부터 6단까지의 기술을 소유한 높은 급의 전문가들에게 주는 칭호이다.

국제사범으로는 이와 함께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고 국제태권도련맹의 인증까지 받아야만이 될수 있다.

1980년대초부터 조선의 국제사범들은 민족의 정통무도를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벌려오고있다.

그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으며 수련생들은 기본동작과 틀, 맞서기, 호신술, 단련 등으로 되여있는 태권도의 기초기술부터 하나하나 원리적으로 배우면서 훌륭한 태권도인으로

중국, 로씨야,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태권도수련생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있는 국제사범들

태권도심판원들을 위한 강습도 진행한다.

성장하고있다.

높은 기술적능력과 함께 국제사범들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씨와 높은 지성미는 태권도를 배우려는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의 국제사범들은 지금까지 세계의 80여개 나라들에서 보급활동을 진행하여오는 과정에 수많은 국제, 국내태권도강자들도 배출하였다.

사진, 글 김 필

새형의 궤도전차가 달린다

수도의 거리들을 누비며 오가는 새형의 궤도전차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이 궤도전차들은 전문생산단위도 아닌 수도려객운수국 뻐스수리공장에서 만든것이다.

지난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자체의 힘으로 궤도전차를 만들어낼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운수국안의 련관단위들과 여러 기술연구집단이 이들의 결의에 합세하였다.

궤도전차의 심장부인 전동기개발에 달라붙은 연구사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종전보다 생산원가가 적으면서도 운영에 편리한 새형의 전동기를 제작도입하는것과 함께 속도변환장치와 조종프로그람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어 100여종의 부분품이 들어가는 편제동장치와 레루제동장치를 비롯한 수십여개의 부속품들도 훌륭히 개발완성하여 궤도전차생산을 적극 추동하였다.

온 공장안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주물, 제관, 가공 등 여러 직장의 로동자들은 부분품가공에 필요한 여러가지 형타와 지구, 장치들을 창안제작하여 제작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련관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궤도전차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하여 불과 수개월만에 기술적특성이 훌륭한 새형의 궤도전차가 태여나게 되였다.

자기의 힘, 과학기술의 힘을 굳게 확신하고 끝까지 노력할 때 설비나 장비를 비롯한 물질적조건의 결여는 더이상 장애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한 이곳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금 새형의 궤도전차들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박병훈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 성 백 화 점

평양시 문수지구에 위치하고있는 대성백화점이 상업, 편의, 급양기능을 다 갖춘 종합적이며 다기능화된 봉사기지로 새롭게 개건되여 지난 4월 개업하였다.

총 부지가 16 350여㎡인 백화점은 찾아오는 손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도록 상품진렬방법과 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봉사환경도 흠잡을데가 없다.

백화점의 1층에는 갖가지 식료품매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으며 그와 잇달린 야외의 전시장에는 가구, 건재품류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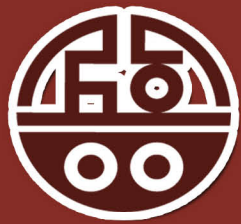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어린이놀이장과 가물치를 비롯한 여러종의 물고기, 조개류들이 들어있는 어항들과 대형수조들이 특별히 손님들의 눈길을 끈다.

2층에는 가정용품과 아동용품, 의복과 의약품, 공예품매대들이 있으며 3층에는 세계적인 명상품, 명제품들이 특색있게 진렬되여있다.

4층에는 갖가지 조선료리들은 물론 아시아, 유럽나라들의 명료리들을 봉사하는 식사실들이 자리잡고있으며 5층에는 전자오락실과 당구장, 청량음료홀 등이 꾸려져있다.

지금 이곳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모든 봉사활동을 인민들의 요구와 구미, 기호에 맞게 해나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있다.

안팎으로 훌륭한 대성백화점은 찾아오는 사람들모두에게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며 나날이 흥성이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충복

과학기술을 생산에 밀착시켜

룡흥제약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이 나날이 증대되고있다.

고려약들만 보더라도 약리작용이 빠르고 쓰기에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리용자들의 호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체84(1995)년 7종의 상비약생산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공장에서는 오늘 180여종에 달하는 의약품들이 나오고있다.

원료의 공급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가 실현된 공장에는 첨단분석설비들과 최신기술에 의거하는 품질보증체계도 완벽하게 확립되여있다.

공장의 보다 큰 재부는 그쯘한 과학기술력량이다.

약학분야를 비롯한 의학부문의 전문가들이 종업원수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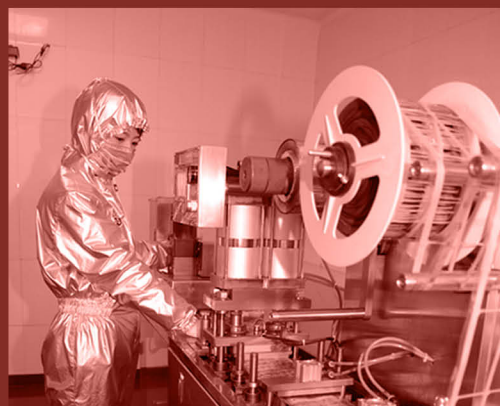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뚜렷이 기여하는 약품들을 다름아닌 자기가 만들겠다는 이들의 자신만만한 패기와 정열은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과 함께 새 제품을 계속 개발하는것을 주되는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오래전부터 고려약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오는 과정에 공장의 기술집단은 약재들의 유효성분함량을 최대로 늘일수 있는 새로운 추출방법을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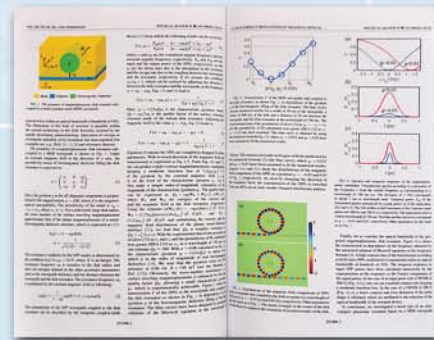
고려약의 우수한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그 사용과정에 나타나는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한 그들의 노력은 제약공업부문의 이목을 끌고있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이 약재로 많이 써오는 개성고려인삼과 궁궁이뿌리줄기, 은조롱을 원료로 공장에서 만든 고려인삼활성알약과 궁궁이혈전주사약, 은조롱고지혈교갑약들은 국내특허권을 받았다.

그리고 비타민C주사약과 부자리중환을 비롯한 적지 않은 의약품들이 중국, 웰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전람회,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 최명진, 글 리미예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학계의 이목을 끈 과학자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임성진

국제학술잡지 《물리학 개관 B》에 실린 론문

2018년 앨버트 넬슨 마퀴스상의 수상자인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연구사 교수 박사 임성진은 정력적인 탐구활동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8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다.

그중 26건은 세계광학협회, 영국물리학협회 등이 발간하는 학술잡지들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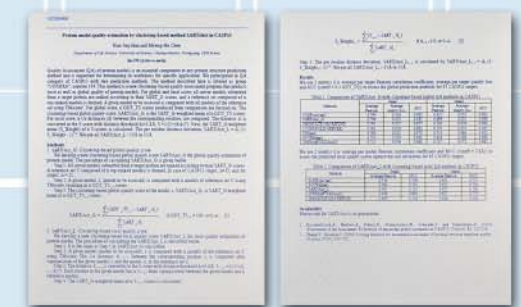
주체106(2017)년에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교과서들인 《비선형광학》, 《량자광학》의 집필자이며 도이췰란드에서 출판된 책 《현대비선형나노광학》의 저자인 그는 현재 세계광학협회,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 등의 학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주체83(1994)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는 국제단백질구조예측경쟁은 생명과학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마당으로,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해에 13번째로 진행된 이 두뇌전마당의 단백질구조모형정확도추정분과의 경쟁에서 리과대학의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인 박사 한군섭이 제출한 정확도예측방법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38살인 그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과학자 6명중의 한명이다.

사진 리명국, 글 최의림

제13차 국제단백질구조예측경쟁에 제출한 론문

리과대학 자연과학연구원 연구사 박사 한군섭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세계결승경연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

재능을 보여준 대학생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뽀르뚜갈에서는 제43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람 세계결승경연이 진행되였다.

1970년대부터 진행되여오고있는 이 경연은 대학들의 교육발전수준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있는 지력경쟁마당이다.

110개 나라와 지역의 3 20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벌린 지역별예선경연에서 당선된 47개 나라 및 지역의 135개 대학에서 온 405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문소민, 김성일, 리국성학생들은 은메달을 쟁취하는것과 함께 동아시아지역 최우수상을 받았다.

높은 실력을 발휘하여 대학의 명예를 빛내인 그들은 지난 시기에도 여러차례의 인터네트프로그람작성경연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선보인바 있다.

사진 홍광남, 글 리미예

리국성

김성일

문소민

민족의 자랑을 화폭에 담아

-평양수예연구소에서-

전통적인 수예기법을 살려

평양수예연구소는 주체36(1947)년 5월의 창립당시에는 자그마한 수예제작소였다.

주체67(1978)년 5월 연구소는 현재의 위치인 보통강반에 새로 건설된 조선식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훌륭한 수예작품들이 전시장을 비롯한 실내의 곳곳에 있는 연구소는 마치 미술전람관을 방불케 한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수예의 창작기법들은 매우 다양한데 이곳의 제1제작단과 제2제작단의 수예가들 거의모두가 그 모든 방법들을 완벽하게 소유하고있다.

그러나 기교만으로 원화에 반영된 대상을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매 작품창작은 수예가들이 여러날 지어 여러달에 걸쳐 가지가지의 색실을 한뜸한뜸 떠나가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성을 요구하고있다.

그러한 창작과정을 거쳐 연구소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있다.

최근에는 풍산개, 소나무, 참매, 목란꽃 등 나라의 상징이며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는 대상들이 작품으로 더 많이 형상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수예가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새로운 기법들을 탐구하고 수예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도 적극 벌리고 있다.

이곳에는 수십년간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교원으로 하는 후비양성체계도 세워져있다.

량면수예 《백두밀영의 봄》을 비롯하여 평양수예연구소에서 창작된 많은 수예작품들이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되였다.

사진 리다정, 글 문진유

수예 《소나무와 매》

수예 《목란》

수예 《참매와 목란》

수예 《국견-풍산개》

재간둥이들의 보금자리

- 신의주시본부유치원 -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신의주시본부유치원은 주체43(1954)년 11월 1일에 개원한 조선에서도 비교적 연혁이 오랜 유치원이다.

본부동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전 교육기관이였던 이곳에서는 1980년대초부터 시안의 조기예술교육단위로서의 사명도 수행하여오고있다.

초기에는 전망성있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악기들인 장고, 저대, 가야금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주다가 그후 점차적으로 성악과 글짓기, 붓글쓰기,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선발하여 가르치던 유치원에서는 최근에는 콤퓨터와 바둑, 수학분야의 신동들을 찾아내여 키우는 사업에로 그 범위를 더욱 넓히였다.

부모들도 스쳐버리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놀음과 장난에서 재능의 싹을 발견하고 가꿀수 있는 훌륭한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있는 이곳의 교육자들은 하나같이 재간둥이들을 키우는데서는 천성이 첫째이라고 말하고있다.

해당한 소질이 있다고 주목된 대상들은 원적인 심의를 거쳐 등록된데 이어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주는 담임교양원과 부모들이 이른바 《전과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교육자가 따로 있다.

그리고 노래와 악기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청음과 시창을 배워주는 교양원이 더 붙게 된다.

그 모든 교양원들은 항상 어린이들의 생활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격과 심리, 소질과 지능정도를 깊이 관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있다.

유치원에 있는 32만여점의 교편물의 대다수도 이들에 의하여 창안제작된것으로서 전국적인 교편물전시회에 출품하여 창안증을 받은것만도 근 500점에 달한다.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1만 수천여명의 어린이들을 졸업시켰는데 그중의 20%정도가 음악, 그림, 붓글씨, 글짓기, 수학, 콤퓨터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았다.

신의주시본부유치원은 주체104(2015)년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안철원, 글 김선경

한생을 가야금과 함께

꼬마가야금수들과 함께 있는 한철, 박성혜부부

한철은 오늘도 가야금협주곡 편곡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박성혜는 한생을 재능있는 가야금연주가들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바쳐왔다.

지난해 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는 무려 1 200여명의 출연자들이 조선의 민족악기-가야금을 타는 장관도 펼쳐졌었다.

여기서 관중들의 시선을 모은것은 무대의 중심에서 정열적으로 연주하는 백발의 로인이였다.

가야금연주가이며 작곡가인 그는 올해 70살의 한철선생이다.

그의 안해 박성혜도 가야금연주가이다.

가야금만 아니라면 그들은 인연이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12살때 평양음악대학(오늘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전문부에 입학한 이들은 당시 대학의 민족음악학부장이며 가야금연주에서 일인자였던 정남희선생의 교육을 받았다.

두 제자는 스승의 총애를 받았고 쌍벽을 이루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국립민족가극단(당시)에서 함께 예술창조활동을 벌리는 나날에 이들은 일생을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

생활에서는 다정하고 살뜰한 부부였지만 가야금연주법의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는 서로가 높은 요구성을 내세우며 경쟁하여온 그들이였다.

30대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한 한철은 가야금독주곡과 협주곡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으며 그 나날에 공훈예술가(1995년) 칭호를 수여받았다.

국립민족예술단 단장으로, 문화성 부상으로 사업할 때도 가야금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이다.

박성혜도 주체76(1987)년부터 30여년간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에서 수많은 가야금연주가후비들을 키워오는 과정에 부교수로 되였다.

아들과 딸도 작곡가로 내세운 이들은 오늘도 가야금과 함께 있다.

사진 홍태웅, 글 문광봉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력장애자

바이올린제작자에게는 매우 고급한 목공기술과 함께 예민한 음감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장애자예술협회 현악기제작실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김승일은 청력장애자이다.

올해 34살인 그는 태여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다. 롱아학교에서의 청소년시절을 거쳐 평양시 서성구역의 한 편의봉사단위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도 김승일은 자기가 앞으로 바이올린제작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였다.

승일의 부모들 역시 그후 장애자예술협회에서 무용수로 예술활동에 참가하는 아들을 보는것만으로 만족했었다.

어릴적에 붙은 습관이라며 여가시간이면 여러가지 수공품을 만들기도 하고 가끔 인민대학습당까지 찾아가 공예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는 그에게서 남다른 재능의 싹을 발견한것은 예술협회의 일군들이였다.

그들은 승일을 장애자기능공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떠밀어주었다.

1년후인 주체104(2015)년부터 승일은 커다란 희망을 안고 현악기제작실에서 바이올린제작을 시작하였다.

허나 자기의 재간을 모두 발휘하다싶이 하면서 만든 첫 제품이 형태는 괜찮은데 소리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였다.

악기가 내는 음을 도무지 가늠할수 없는데 어찌하랴.

그를 이끌어 제작대앞에 다시 세워준것은 송학문을 비롯한 제작실성원들이였다.

그때부터 승일은 자기 식의 악기제작방법을 하나하나 창조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세번째도 실패였지만 다시는 주저앉지 않았다.

음의 진동을 손감각으로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세공술도 더욱 련마해나갔다.

하여 끝끝내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후 김승일이 만든 바이올린이 주체106(2017)년 9월에 진행된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기술상을 수여받았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찾았던 한 외국인도 김승일에 대해 알고는 놀랍다고,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안고있는 그가 훌륭한 악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오늘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국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 리명일, 글 강수정

조선장애자예술협회 현악기제작실에서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기술상을 받아안고 주체106(2017)년 9월

4중 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인
모란봉체육단 유술책임감독 계순희

7년전, 4중 세계유술선수권보유자이며 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계순희는 모란봉체육단 녀자유술감독이 되였다.

놀라움과 의문의 파도가 일었다.

그가 선수생활을 마감하기 전부터 이름있는 체육단들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에서 함께 사업할것을 요청해왔던것이다.

10대에 첫 국제경기인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해서부터 자기의 실력을 과시한 계순희였다.

이 경기대회 녀자유술 48kg급 결승경기에서 그는 무적의 강자로 일러오던 일본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여 《세계녀자유술의 새별》, 《세계녀자유술계를 놀래운 경이적인 인물》로 등장하였다.

그후 그는 주체90(2001)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첫 세계선수권을 쟁취하고 주체92(2003)년과 주체94(2005)년, 주체96(2007)년에 있은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7kg급경기에서 련이어 세계선수권을 획득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였다.

이런 경기전적을 가진 그가 선수후비육성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모란봉체육단의 녀자유술감독이 된것은 자기의 선수시절이 흘러간 이곳에서 제2, 제3의 세계적인 강자들을 키우겠다는 마음에서였다.

1년후부터 벌써 이곳의 녀자유술선수들은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등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4살때부터 그의 지도를 받아온 조선향선수는 2015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룩한 성과를 두고 사람들이 축하를 보낼 때면 계순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군 한다.

지도교원의 손길에 이끌려 천성적인 재능을 부단히 련마하여온 청소년체육학교시절이며 우승의 감격에 겨워 눈물짓던 선수시절 그리고 새로운 체육과학기술들을 습득하던 조선체육대학 학생시절…

나라에서는 조국을 빛내인 민족의 장한 딸이라며 그를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내세워주었다.

하기에 그는 책임감독사업을 하는 오늘도 늘 유술복을 입고 선수들을 이끌고있다.

열정넘친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없이 누가 감독이고 선수인지 영 분간할수 없다면서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가 훈련장에서 자주 하는 《더 정확히!》, 《더 빨리!》, 《더 날쌔게!》의 이 세마디속엔 선수들만이 아닌 자신에 대한 요구성도 담겨져있다.

우승의 금메달, 이것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계순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사진 고승혁, 글 최의림

계순희는 오늘도 유술선수육성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주체90(2001)년 세계유술선수권대회 녀자유술 52kg급경기에서 첫 세계선수권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퇴근길에서

제6차 국견-풍산개품평회 진행

품평회에서 1등을 한 풍산개들
수컷(왼쪽), 암컷(오른쪽)

지난 4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제6차 국견-풍산개품평회가 진행되였다.

풍산개에 대한 등록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풍산개의 표준형태와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여 그 순종마리수를 늘이자는데 목적을 둔 이번 품평회에는 시안의 동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풍산개를 키우고있는 주민들, 풍산개기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예비심사, 기본심사, 종합심사, 최종심사, 군중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등수를 결정한 심사에서는 사리원시 구천1동에 사는 주민이 키운 풍산개수컷과 문화동에 사는 주민이 기른 풍산개암컷이 각각 1등으로 평가되였다.

품평회에서는 풍산개순종보존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과 두차례에 걸쳐 품평회에서 1등을 한 사리원시의 한 주민의 가정에서의 풍산개기르기경험이 발표되였으며 등급을 받고 등록된 풍산개를 키운 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강습도 진행되였다.

품평회를 통하여 분산적으로 기르던 많은 풍산개들이 조사등록되고 가정에서 풍산개를 기르는데서 터득한 좋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주체45(1956)년 4월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풍산개는 주체103(2014)년에는 국견으로 제정되였다.

바로 그해부터 해마다 4월이면 사리원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품평회가 진행되여오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강수정

력사유적

수 양 산 성

황해남도 해주시 학현동에 있는 수양산성은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에 쌓은 성으로서 예로부터 황해도(당시)의 3대산성의 하나로 일러왔다.

북쪽에는 수양산줄기의 높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남동쪽에는 무연한 연백벌이, 남쪽에는 해주만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다.

수림이 울창하고 깊숙한 골짜기마다 시내물이 흐르는 성안에는 이름난 수양산폭포까지 있어 경치가 매우 좋다.

동, 남, 북쪽이 높고 서쪽은 낮으며 두개의 깊은 골짜기와 넓은 공지를 가지고있는 이 성은 서쪽에 높이 솟은 장대봉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봉우리들을 련결한 둘레 5 258m의 큰 산성이다.

지형지물을 잘 리용하여 대부분 바위우에 쌓은 성벽의 높이는 보통 6~7m, 밑너비 7~8m, 웃너비 3~4m이다. 성은 거의 전구간을 량면쌓기방법으로 쌓아 든든하게 하였다.

성에는 동, 서, 남, 북쪽에 각각 대문이 있었다.

이 성에는 장대터와 많은 집터들이 있다.

성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투쟁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선조들의 축성기술을 보여주고 애국적투쟁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들중의 하나인 수양산성은 훌륭히 보존되고있으며 인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휴식장소로 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영조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198012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해칠보의 달문 사진 홍 훈